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평가 '우수'

4차년도 사업비 추가 지원 받아... 프로그램 질적 성장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2017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차년도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추진위원장 윤명숙)은 전국 10개 권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를 선도대학으로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가 협력대학으로 참여해 자체, 지역산업과 연계한 '농생명·한문화 융합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4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우수평가에 따라 전북대는 4차년도 사업비 13억5천만 원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북 컨소시엄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과 관리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

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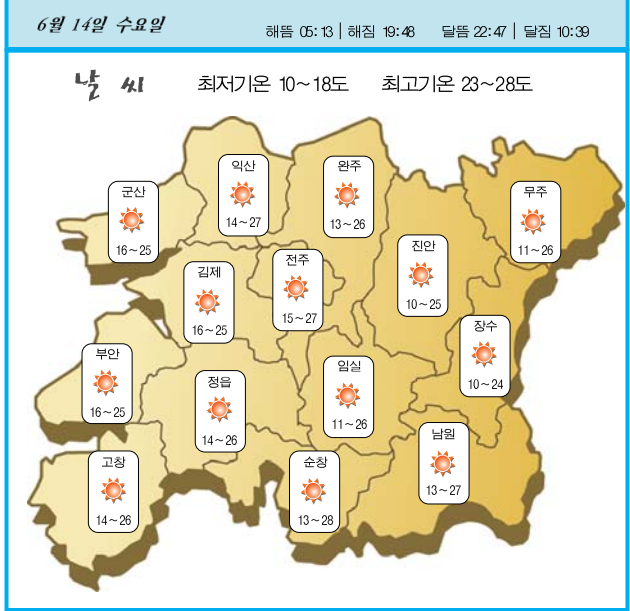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전북 컨소시엄은 그간 저개발국가를 타깃으로 맞춤형 농생명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국내 최초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베트남 LED 연구센터개소, 우간다 농업지도자연수원 운영사업 등을 통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 우수 인재를 유치했고 해외 현지 교육

을 통해 관련 분야 학부생을 유학생으로 유치하며 농생명 전문인력으로 키워내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4년간 지속하고 있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기본 운영 노하우와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기반으로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산업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전북 지역만의 명품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2018학년도 고교 학과개편, 인가 8교 · 부분인가 1교 결정

도교육청, 타당성 학생배치계획 · 교육시설 · 교원확보 · 교육과정 편성 계획 등 사전 종합 검토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2018학년도 학과개편을 신청한 9개 고교를 대상으로 부서협의회를 열어 8개 고교는 인가하고 1개 고교는 부분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학과개편의 타당성, 학생배치계획, 교육시설 및 교원확보, 교육과정 편성 계획 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해 인가가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학과개편을 인가받은 학교들은 대부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맞추거나 지역여건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보고는 그린에너지과를 전기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강호항공고는 상업 3학급을 2학급(항공경영서비스과)으로 축소하는 대신 공업 5학급을 6학급(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항공전기전자과)으로 늘리는 쪽으로 학과개편을 인가 받았다.

전주공고는 산업전자과를 전자과로, 이리공고는 전산응용기계과·전자자동화과·신소재화공과·디지털전자정보과·정보통신응용과를 기계과·전기과·바이오화학과·전자과·통신과로 각각 변경하는 등 NCS 기반 교육과정에 맞게 학과 명칭을 단순화했다.

이 밖에 장계공고는 자동차모델링



전북투어패스 구매 전달식 송하진 지사는 13일 2,500만원 규모의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한 도내 선도기업 협의회 대표를 시종교 대우전자부품(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구매 전달식을 가졌다.

과를 자동차기계과로, 백화여고는 인터넷정보과를 창업비즈니스과로, 영선고는 관상원예과를 생태조경과로, 부안제일고는 조선응용기계과를 기계과로 각각 명칭변경을 신청, 인가를 받았다.

또한 도교육청은 올해 학급편성 결과 최저학생수 기준에 미달했던 3개 고교 5개 학과에 대해서는 학급편성 지침에 따라 '폐과'하여 2018학년도 인가 학급수에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내 단일 학과의 학급편성 최저 학생수 기준은 10명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조성사업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국토부장관상 수상

전주시가 추진한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조성사업이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조성사업은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신정문 사이의 인도와 주변 녹지를 자연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녹색예술거리로 조성한 사업으로, 전주시와 전북대앞상가연합회, 지역주민, 전북대학교, 지역예술가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행한 공모사업이다.

산림청 복원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주시에서 시설 투자비 등 행정적 지원과 디자인 방향설정, 지역주민들은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및 사업 참여를, 전북대학교에서는 디자인 방향설정 및 예술작품 조성을 추진해 독특한 숲과 예술거리가 탄생하게 됐다.

특히 차도와 인도 사이에 녹색 차단을 만들어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명품 예술길로 각광을 받고 있다.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조성사업은 비교적 소규모 예산(5억7천만 원)사업인데다 사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토부 국토경관 디자인대전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민·관·학이 거버넌스를 이루었다는 점, 공간을 나누고 함께 향유한다는 점, 사업시행 이후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이 현장 실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로 및 광장 분야에서는 부산과 광주 등 광역시와 경쟁해 최고상인 1등 장관상을 수상해 더욱 뜻깊은 상이 됐다.

/인재용 기자

정읍중, 배드민턴 육성 장기영 장학금 전달식

정읍중학교(교장 이종혁)가 14일 배드민턴 육성을 위한 장기영 장학금(동문선배) 전달식을 갖는다.

장기영 장학금은 정읍중 배드민턴부 육성을 위해 26회 졸업생인 장기영(정형외과 원장) 동문이 8년째 전달하는 장학금이다.

장기영 동문은 이날 정읍중을 방문하여 배드민턴 선수 13명에게 직접 2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배드민턴부 주장인 3학년 장은유

학생은 "선배님으로부터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선배님의 모교사랑과 운동부 육성에 대한 큰 관심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여 정읍중을 빛내는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종혁 교장은 "정읍중 선배의 후배사랑이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이루려는 도전과 용기를 심어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